

# 광주 구도심 초등생 5년 새 절반 줄었다

### 8개교 1449명 불과

광주의 도심 초등학교 학생수가 최근 5년 새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교육청이 지정한 '도심 소규모 초등학교' 8곳의 전체 학생수는 1449명으로 지난 2008년 2616명에 견줘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들 학교는 학생 급감으로 광주시 교육청이 도심 소규모 학교로 분류한 곳이다.

■ 광주 도심 소규모 학교 학생추이 (단위:명)

학교	2008년	2012년	감소(%)
삼정	374	180	194(51.8)
서석	397	250	147(37.0)
수창	281	141	140(49.8)
중앙	195	120	75(38.4)
중흥	320	175	145(45.3)
극락	228	184	44(19.2)
양동	382	180	202(52.8)
월산	439	219	220(50.1)

(자료:시교육청)

수창초교는 지난 2008년 학생수가 281명이었으나 올해 141명으로 49.8% 줄었다. 양동초교도 2008년 382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52.8% 빠졌다. 삼정·서석·중앙·중흥·극락·월산 초교 등 6곳도 학생수가 격감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20여년 전만해도 학년별로 학생이 수백명에 달했던 곳이다. 이들 학교가 있는 지역은 광주 동구 등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새로운 인구유입 요인이 없어 신입생 고갈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 감소추세라면 도심에서 재학생 100명 미만 학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 현재 중앙초교의 전체 학생수는 120명에 그

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 운영,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 소통·협력 강화 등 10여개 세부 과제를 실천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줄고 있는 도심 초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야간 건강검진센터 3곳 운영

광주시는 4일 서구 서광병원, 북구 은병원·광주일곡병원 등 3곳에 야간 건강검진센터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이 오후 9시까지 연장된다. 시행은 올 연말까지다. 야간건강검진센터는 광주시가 직장인과 취약계층의 병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으며 열

액과 소변검사, X레이검사 등 일반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시는 해당병원에 인건비 보조차원에서 각 2000만원을 지원했다. 평소 중·대형 병원의 건강검진이 오후 5시 전후로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인 등이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일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아낌없이 주는 나무)이 헌책을 가져오면 소나무 모둠으로 바꿔주는 '책 나눔 나무꺼안기' 행사를 가졌다. 목욕 받기 위해 헌책을 들고 있는 어린이들이 표정이 귀엽기만하다. 행사는 7일까지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주택·비닐하우스 등 100억대 손실

### 광주·전남 강풍피해...자재운반선 전복 1명 사망

지난 3일 광주·전남 지역에 몰아친 강풍으로 1명이 숨지고 100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4일 광주·전남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3일 강풍으로 1명이 숨지고 농작물 시설 등이 파손돼 이날 오후 8시 현재 10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께 해남군 화원면 발발리 앞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에 인선 선적 980t급 무동력 자재운반 부산 A호가 전복돼 작업중이던 장모(61·인천시)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대불산단 내 또 중공업에서는 선박블럭 제작용 이동식 크레인인 전도대 가설건축물 1850㎡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 8대가 파손됐다.

또 나주·담양·해남·보성·장성에서는 비닐하우스 1151동 82ha가 파손됐으며, 해남·영광·강진의 인삼재배 시설 14개소 17.1ha가 무너져 내렸다.

목포와 장흥에서는 어선 13척이 반파되거나 침몰했고, 해남에서는 2750척(1척=1.8×40m)의 감양식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또 축사 및 오리사 195동과 전남 지역 주택 지붕 41동이 파손됐다.

무안 남약산도시와 나주혁신도시에서는 경관 조성을 위해 식재한 어린나무들이 강풍에 부러지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관산구 비아, 남구 대동 등에서 비닐하우스208동이 강풍 피해를 당하는 등 가로수, 담장, 차량 등 모두 46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추가 피해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전역에 내려졌던 강풍과 풍랑 특보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4일 모두 해제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폭탄주는 피하자" 복지부, 음주문화 개선안

보건복지부는 제40회 보건의 날(7일)을 맞아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4일 내놨다. 복지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술 전전히 나누어 마시기 ▲2차 가지 않기 ▲대화 많이 하기 ▲금주일 정하기 ▲물 자주 마시기 ▲안주 함께 먹기 ▲폭탄주 피하기 등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부터 119 절주운동(1가지 술로, 1차만 하고, 9시 전에 끝내는 술자리)을 펴고 있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4분 해질 18시 57분 달돋이 17시 21분 달질 04시 46분

**아침 안개 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나 오전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맑음	3/14℃
목포	맑음	5/12℃
여수	맑음	7/15℃
나주	맑음	2/15℃
완도	맑음	5/14℃
구례	맑음	2/16℃
강진	맑음	3/14℃
해남	맑음	2/14℃
장흥	맑음	2/14℃
순천	맑음	4/16℃
영광	맑음	2/12℃
진도	맑음	3/13℃
전주	맑음	2/13℃
군산	맑음	2/10℃
남원	맑음	0/13℃
홍산도	맑음	6/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관심 보통 낮음  
 서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1.5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목포 00:40 06:11  
 서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목포 13:04 18:32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여수 08:03 01:46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여수 20:27 14:0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날씨						
최저/최고	1/13	2/14	5/16	6/18	8/16	10/15

## 대리운전 고객정보 2600만건 유출 판매상 적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해킹된 대리운전 운행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출 이용고객 DB 등 2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DB 판매상 임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DB를 구입해 사용한 대리운전업체 사장 오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 거주 해커 배모(40·기소중지)씨로부터 대리운전 고객과 기사의 정보가 담긴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A사의 DB 약 2600만건과 대부업체 S사의 고객 DB 350건을 넘겨받아 이를 오씨에게 1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임씨는 배씨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해 치과의사 약 2만6000명의 개인정보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남뉴스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험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http://www.kjhr.com)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대한한의원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중-9061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공황장애(恐慌症)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테면, 집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곧 멎어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이든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에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해(心脾兩虛), 심신불교(心腎不交), 위중불화(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느나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환(罹患)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공황장애의 치료는 진단과정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치료방법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정동 추선회관(추선회관) **경희한의원** **추진장 원비** **진료 문의**